

# ‘슈퍼루키’ 김도영 프로 첫 홈런포 폭발

## KIA, 삼성과 시범경기 7-4 승리 김도영 선취득점·멀티히트 기록

‘슈퍼루키’ 김도영이 프로 첫 홈런을 터트리면서 1군 엔트리 어필쇼를 펼쳤다.

KIA 타이거즈가 15일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삼성 라이온즈와의 시범경기 4차전에서 7-4 승리를 거뒀다.

앞선 두차례 시범경기에서 특급 스피드와 타격 재능을 보여줬던 김도영이 세 번째 경기에서는 홈런포까지 날리며, “역시 슈퍼루키”라는 찬사를 받았다.

투타자 겸 3루수로 선발 출장한 김도영은 1회 선취득점의 주인공이 됐다.

김도영이 초구에 반응한 공이 2루수 앞으로 향했다. 2루수 김상수의 스피이크가 그라운드에서 걸리면서 송구를 하지 못했고, 그사이 김도영이 1루 베이스를 밟았다.

소크라테스의 3루 땅볼 때 2루로 향한 김도영은 나성범의 우전 안타 때 홈에 들어오면서 득점을 기록했다.

뷰캐넌에 이어 최하늘이 등판한 3회. 김도영이 선두타자로 나와 이내 그라운드를 돌았다.

볼과 스트라이크를 하나씩 지켜본 김도영이 벱락 같은 스윙으로 체인지업을 좌측 담장 밖으로 보내면서 프로 첫 홈런을 기록했다.

‘막내’에 이어 이어진 1사 1·2루에서는 ‘말형’ 최형우까지 홈런포를 쏘아 올리면서 KIA는 3회에만 5점을 쓸어들었다.

김도영은 4회 세 번째 타석에서는 좌중간으로 공

을 보내면서 멀티히트도 기록했다.

김도영은 남다른 발도 보여줬다. 소크라테스가 중견수 플라이로 몰려나면서 2사 1루, 김도영이 김선빈의 타석 때 스타트를 끊었다.

공보다 빠르게 베이스에 손이 닿았지만, 가속도가 붙은 김도영이 베이스를 지나치면서 아웃이 되고 말았다. 너무 빨라서 기록된 ‘도루 실패’였다.

김도영은 7회 마지막 타석에서는 헛스윙 삼진으로 몰려났지만 첫 홈런, 첫 타점을 올리면서 프로 데뷔를 위한 걸음을 재촉했다.

김도영이 타석에서 무력시위를 벌이는 동안 유격수 박찬호는 신들린 수비로 박수를 받았다.

박찬호는 세 타석에서 안타 없이 몰려났지만 잇단 호수비로 상대의 안타를 땅볼로 만들었다.

5회말 1사 만루에서 피렐라의 깊숙한 타구를 잡은 박찬호가 방향을 틀어 2루로 정확하게 공을 던지면서 주자를 잡아냈다.

6회에도 박찬호의 진가가 발휘됐다.

선두타자 김동엽의 타구가 2루 베이스 쪽으로 바운드 됐고, 유격수 자리에 있던 박찬호가 달려들어 내야안타를 땅볼로 만들었다.

이어 공민규의 타구가 박찬호 앞에서 높게 바운드 됐지만 이마저도 잡아내 1루 송구까지 완료했다.

김도영 입장에서 눈앞에서 ‘홀모델’ 박찬호의 특급 수비를 지켜보면서 프로 실력을 확인하고 배우는 시간이 됐다.

‘선발 후보’ 이민우는 4이닝 5피안타(1피홈런) 1탈삼진 2실점을 기록했다.

한편 대구에서 2연전을 소화한 KIA는 16일 휴식날을 보낸 뒤 17·18일 수원에서 KT 위즈와 시범경기 일정을 이어간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IA타이거즈 신인 내야수 김도영이 15일 대구 삼성 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경기에서 첫 홈런을 기록한 뒤, 홈런 공을 들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KIA타이거즈 제공>



15일 미국 플로리다주 폰테베드라비치의 TPC 소그래스 스타디움 코스에서 열린 미국프로골프(PGA)투어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캐머런 스미스(호주)가 우승 트로피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 캐머런 스미스, PGA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우승

캐머런 스미스(호주)가 우승 상금 360만 달러(약 44억원)의 미국프로골프(PGA)투어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총상금 2000만달러) 정상에 올랐다.

스미스는 15일 미국 플로리다주 폰테베드라비치의 TPC 소그래스(파72)에서 열린 대회 최종 라운드에서 6언더파 66타를 몰아쳐 4라운드 합계 13언더파 275타로 우승했다.

지난 1월 센트리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에서 최솨타 우승 기록을 세운 뒤 두 달 만에 우승을 보낸 스미스는 PGA투어 통산 5승 고지에 올랐다. 스미스가 받은 360만 달러는 골프 역사상 가장 많은 우승 상금이다.

그가 이 대회 전까지 159경기에 출전해 4차례 우승하면서 모은 상금 1912만 달러의 20%에 가까운 돈을 이번 대회 우승 한 번으로 챙겼다.

스미스는 단숨에 이번 시즌 상금랭킹 1위(579만 달러)로 올라섰다.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5년 출전권과 US오픈, 디

오픈, PGA챔피언십 3년 출전권에 5년짜리 PGA투어 카드 등 푸짐한 특전도 받았다. 호주 선수로는 그레그 노먼, 스티브 엘킹턴, 애덤 스콧, 제이슨 데이에 이어 다섯 번째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우승을 따냈다.

PGA투어 18홀 최소 퍼트(18개) 기록을 갖고 있는 스미스는 최종 라운드에서 신기의 퍼트를 앞세워 버디 10개를 쓸어 담으며 역전 드라마를 썼다. 승부는 TPC 소그래스의 상징인 17번 홀(파3)에서 결판났다. 홀을 보고 9번 아이언으로 날린 볼은 아일랜드 홀 오른쪽 귀퉁이에 자리 잡은 핀 1.2m 옆에 정확하게 떨어졌다.

준우승한 아니르반 라히리(인도) 라히리도 218만 달러라는 엄청난 상금을 받았다. 그는 지난 시즌 22경기에서 받은 상금이 95만 달러에 불과했다.

폴 케이시(잉글랜드)가 2타차 3위(11언더파 277타)에 올랐다. 임성재와 이경훈은 공동 55위(2오버파 290타)에 그쳤다.

/연합뉴스

## KLPGA 대회 올해부터

### 거리 측정기 사용 허용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가 올해부터 주관 대회에서 거리 측정기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2019년부터 챔피언스투어에서 거리 측정기 사용이 허용해온 KLPGA는 올해부터 주관하는 모든 대회로 거리 측정기 사용 범위를 넓혔다.

정규 투어는 물론 드림 및 점프 투어, 각종 시드전 및 선발전이 모두 해당한다.

또 정규투어와 드림투어에서는 그린을 읽기 위한 자료 사용이 제한된다.

기존 아디지북은 그린의 경사 방향 및 각도의 수치가 상세히 표시돼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심한 경사면이나 비탈진 그린의 가장자리 구역만 표시한다.

카드 사용 규정도 바뀐다. 7월부터 KLPGA가 주관하는 모든 대회의 전통 및 수동 카드 이용이 금지된다. 이는 경기 시간 지연, 안전 및 코스 훼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연합뉴스



이건희



두현석

## 광주FC, 안방에서 4연승 간다

### K리그2 5R 서울이랜드전 이건희·두현석 득점포 준비 전남드래곤즈는 광양서 부천FC 상대 연승 도전

광주FC가 상승세를 이어 안방에서 4연승에 도전한다.

광주는 16일 오후 7시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서울이랜드를 상대로 하나원큐 K리그2 2022 5라운드 경기를 치른다.

분위기가 뜨겁다. 광주는 4라운드 안산그리너스와의 원정경기에서 이근희와 두현석의 골로 2-0 승리를 거두면서, FA컵을 포함해 3연승 질주에 성공했다.

개막전에서 신생팀 김포FC에 1-2 일격을 당했지만 ‘쓴 보리’였다.

‘초보 사령탑’ 이정호 감독의 탄탄한 수비, 조직력 축구가 빠르게 자리 잡으면서 광주만의 색이 나오고 있다.

연승보다 더 의미 있는 부분은 최근 3경기 실점이 ‘0’이라는 것이다. 주장 안영규를 비롯해 박한빈과 김현훈, 김승우 등이 견고한 수비 라인을 형성하면서 ‘0’의 행진을 펼치고 있다.

득점 장면에서는 유기적인 움직임과 측면 돌파가 돋보였다.

안산 원정에서 이근희와 두현석은 상대의 빈틈을 잘 파고들면서 득점을 올렸다. 측면 수비수 이은똘은 날카로운 왼발 크로스로 두 골에 모두 관여하면서 경기 수훈선수(MOM)는 물론 K리그2 4라운드 MVP 자리까지 차지했다.

광주는 상승세에 자신감을 더해 서울이랜드 공략에 나선다.

정정용 감독이 이끄는 서울이랜드는 김인성, 김선민, 서보민, 이동률 등 K리그1 무대를 누빈 선

수들로 구성됐다. 지난 라운드 김포와의 대결에서는 0-2의 승부를 2-2로 만드는 등 뒷심을 발휘, 올 시즌 2승 1무로 리그 4위에 올라섰다.

좋은 흐름을 탄 두 팀이지만 상대전적에서는 광주가 앞선다. 8번 만나 6승 2무를 기록했다. 최근 5경기에서는 14득점 3실점을 기록하면서 압도적인 경기를 펼쳤다.

광주가 탄탄한 수비로 상대 공격을 묶고, 빠른 스피드와 연계플레이를 활용한 공격으로 득점을 노리면서 4연승에 도전한다.

4경기 만에 골침묵을 깨고 첫 승을 신고한 전남 드래곤즈도 안방에서 연승을 준비한다.

전남은 16일 오후 7시 광양전용구장에서 부천FC를 상대로 5라운드 대결을 벌인다.

전남은 앞선 경남 원정에서 장성재의 동점골과 카차라바의 역전골로 2-1 승리를 거뒀다. 장성재가 올 시즌 전남의 첫 골 주인공이 됐고, 카차라바는 첫 승 주역이 됐다.

멀티골로 공격의 물꼬를 튼 전남은 어려운 상대를 만난다.

부천은 지난 4라운드 부산아이파크와의 경기에서 1-0승리를 거두면서 3연승에 성공했다. 또 3승 1무를 기록하면서 K리그2 1위 자리를 달리고 있다.

올 시즌 4경기에서 단 1실점만 기록한 안정적인 수비와 함께 3골을 기록하고 있는 공격수 한지호의 활약이 눈에 띈다.

승점 사냥에 시동을 건 전남에게 필요한 것은 세밀함이다.

앞선 경남전에서 마수걸이 승은 성공했지만 내용을 보면 아쉽다. 후반 21분 경남 김종필이 경고 누적으로, 후반 막판에는 경남 에르난데스가 다이스렉트 퇴장당하면서 수적 우위를 점했지만 압도적인 경기력은 보여주지 못했다. 수비 실수로 몇 차례 위기 상황도 맞았다.

골 침묵을 끝낸 전남이 세밀한 승부로 부천의 4연승을 저지하고, 연승을 만들어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